

투명한 학생회비 운용... 학생회 통장 개설이 대안

고도희 기자 kdhhistory@khu.ac.kr

학생회비는 학생이 직접 납부하는 만큼 모든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매해 공금 사용의 투명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우리신문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생회비 사용을 위해 단과대 및 학과의 이번 학기 학생회비 징수 및 운용 계좌 현황,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단체 명의 통장 사용 등을 알아봤다.

새 학기를 맞아 각종 행사와 활동이 활발해지며 단과대학(단과대)부터 학과까지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학생회비는 학생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 활동 운영비를 포함한다. 납부는 선택사항이나 자치회비와 달리 공문이 아니라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학생에게 통보된다. 가격 또한 소속 단과대와 학과에 따라 10만 원 안팎부터 40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하지만 2023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던 문과대학의 비대위 단위 학생회비 징수 당위성 부족, 2021년 타 단과대보다 높은 액수의 학생회비를 징수하는 미술대학의 분할 납부 돌연 폐지, 2017년 연극영화학과 공연 제작 실습비 개인 계좌 보관, 2015년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 학생회비 관리 부실 및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의 불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내가 낸 돈이 잘 쓰일지 의문인 상황에 회비 납부를 고민하는 신입생이 많다.

각 단위 학생회는 학생회비를 통해 외부 간섭이나 압력에서 벗어나 재정 독립을 이루고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 나간다. 그렇기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징수부터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 관리 필요 대안은 단체 명의 통장 사용

하지만 취재 결과 24개 단과대 중 무용학부, 치과대학, 공과대학, 전 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0곳은 개인 명의 계좌로 학생회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외 문과대학, 한의과대학은 올해 학생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비를 걷지



경희대학교 0000 학생회		님
계좌번호		
과목	기업자유예금	
		계좌개설일 2021-02-25 계좌개설점 경희대(출)
이 통장은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해당상품별 거래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통장 사본은 실제 거래를 위한 통장이 아니라, 예금주 및 당행에 존재하는 계좌임을 확인하는 이미지 출력물임을 알려드립니다.		

24개 단과대 중 8곳은 단체 명의 통장으로 학생회비를 운용 중이다. 이 중 경영대학은 단과대 최초로 법인화 및 학생회 명의 통장 개설을 추진했다. (사간·고도희 기자)

않았으며 이과대학, 약학대학, 호텔관광대학은 단과대 학생회비는 따로 걷지 않았다. 나머지 8곳은 단체 명의 통장을 사용 중이었으며, 음악대학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단체 명의 통장 법인화가 꼽힌다. 단체 명의로 법인화된 계좌를 사용하면 학생회 임원의 자금 운용 내역을 비교적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 임기에 상관없이 연속적인 증빙이 가능하고 지난 학생회비 납부자 파악도 쉽다. 이외에도 법인화된 통장에서 파생되는 2개 이상의 학생회비

카드 동시 사용에 따른 편의성 증대, 대표자 변경 시 계좌 재개설 불필요, 개인 계좌보다 적은 한도 제한 등 장점이 많다.

학생회 내외 의견 충돌로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어려워

공식적인 단체 명의 계좌로 학생회비를 예치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영대학은 2016년 단과대 학생회 최초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학생회비 운용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경영대는 소재지가 없는 빅데이터응용학과를 제외하고

학과에서도 모두 법인 통장을 사용 중이다.

경영대학 조현우(경영학 2021) 학생회장은 “경영대학 세칙에 따라 매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는 총학생회 자치회비의 통장거래내역 증빙 포맷을 이용해 내부 공유와 파악이 쉽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의 투명성 확보는 학생의 돈을 쓰는 단체인 만큼 당연한 절차고, 이에 더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인 통장 개설이 무산된

학과도 적지 않다. 이과대학은 지난 해부터 학과 학생회비 운용 계좌 법인화를 시도했지만 물리학과를 제외한 5개 학과 학생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과대학 최초로 학과 학생회비 통장 법인화를 추진한 이과대학 이길준(지리학 2020) 전 회장은 “총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과도 많고 수기 엑셀 파일, 총무가 사용하는 은행 잔고까지만 공개하기도 해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회의에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으나 귀찮음, 법인화 추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예산 관리와 증빙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를 크게 반대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신문은 법인화 반대 이유를 듣기 위해 이과대학 개별 학과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법인화를 찬성하는 물리학과를 제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법인화 통장 사용이 전무하던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올해 초 총학이 계좌 법인화를 시작해 단과대 단위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후 국제캠 단과대 중 최초로자 유일하게 단체 명의 통장 사용을 시작한 곳은 체육대학이다. 체육대학 학생회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학생회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추진됐다”고 전했다.

학생이 직접 뽑은 학생회 학생을 위한 학생회 돼야

학생회비는 학생이 자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만큼 집행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학생회비 계좌 법인화는 학생과 학생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 기관의 발전과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회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향대회운영위원장 김동현(미디어학 2021) 씨는 “학생회는 학우의 학교생활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며 “개인 통장을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분명하고, 단체의 법인 통장 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